

I. 초기국가의 성격

1. 한국 고대의 정치발전 단계론
2. 국가 형성 이론의 한국사 적용문제
3. 초기국가의 성격

I. 초기국가의 성격

1. 한국 고대의 정치발전 단계론

한국 고대사에서 국가의 기원 및 형성에 관한 문제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나, 또는 전통 마르크시즘에서 국가의 본질적 속성과 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치·사회·경제 등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에 대한 본격적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국가의 본질에 관한 검토는 한편으로 국가의 기원 및 형성에 관하여 역사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활성화시켰고, 이와 아울러 국가 기원에 관한 인류학적 성과를 추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한국 고대사 분야에서 국가 기원 및 형성과 관련된 논의는 이러한 미국 인류학계의 성과가 소개 수용되고, 또한 국내에서 새롭게 축적된 고고학적 성과에 의해 종래 불신되었던 《三國史記》 초기 기록에 대한 신빙성이 제고되는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고대국가의 기원과 형성문제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논의가 전개된 배경과 기왕의 연구성과에 나타난 문제점 및 쟁점사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 한국사에 적용된 정치발전 단계론의 내용을 보면¹⁾ 일찍이 白南雲이 제시한 原始氏族社會

1) 한국 고대국가 형성문제에 관한 연구사 정리로는 다음의 글들이 있다.

金貞培, 〈韓國古代國家 起源論〉(《白山學報》 14, 1973;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高麗大 出版部, 1986, 46~68쪽).

盧泰敦, 〈國家의 成立과 發展〉(韓國史研究會 編, 《韓國史研究入門》, 知識産業社, 1981), 114~122쪽.

金貞培, 〈國家起源의 諸理論과 그 適用問題〉(《歷史學報》 94·95, 1982; 위의 책, 168~191쪽).

김광익, 〈국가형성에 관한 인류학적 이론과 한국고대사〉(《韓國文化人類學》 17, 1985).

에서 原始部族國家로, 그리고 奴隸國家로 발전·전개되었다는 주장에서 그 최초의 모습을 볼 수 있다.²⁾ 그는 夫餘·沃沮·三韓·초기 고구려 등을 부족국가 단계로 설정하였던 것이다.³⁾ 백남운의 이같은 주장은 마르크스(K. Marx)의 유물론적 역사발전 단계에서 국가 성립 이전 단계를 막연히 원시사회라고 단순화시켜 표현한 것에 대한 하나의 보완으로서 엥겔스(F. Engels)가 제시한 국가 성립 이전 단계의 다양한 정치적 발전도식을 수용한 것이었다.⁴⁾ 그런데 이같은 견해는 모르간(L. Morgan)이 인간역사의 진화도식을 야만(전기-중기-후기)-미개(전기-중기-후기)-문명의 7단계로 구분한 인식체계를⁵⁾ 근거로 한 것이었다. 모르간이 제시한 이러한 발달 단계는 인간이 조직한 최초의 사회인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 즉 혼인형태의 변화 발전에 기준을 둔 것이었다.

백남운이 제시한 이같은 발달 단계는 이후 사회경제사학자로 분류되는 일련의 학자들에 의하여 노예제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⁶⁾ 즉 사회경제사학자들의 인식 범주는 기본적으로

崔夢龍, 〈鐵器(初期鐵器·原三國)時代와 古代國家의 發生〉(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사연구입문》 제2판, 지식산업사, 1987).

李基東, 〈韓國 古代國家 起源論의 現段階〉(《韓國上古史의 諸問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177~195쪽.

——, 〈韓國 古代國家 形成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新進化論의 문제를 중심으로—〉(《汕耘史學》 3, 1989).

최광식, 〈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연구사 검토〉(《역사비평》 8, 1990).

全京秀, 〈신진화론과 국가형성론〉(《韓國史論》 19, 서울대, 1988).

朱甫嗽, 〈한국고대국가형성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1990), 221~246쪽.

崔光植, 〈북한학계의 한국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1990), 171~198쪽.

최광식, 〈원시공동체의 해체와 고대국가의 발생〉(《한국사》 1, 한길사, 1994).

2)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東京; 改造社, 1933).

3) 白南雲, 위의 책, 1~16쪽.

4) F. Engels,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New York; Pathfinder Press, 1972.

5) Morgan, Lewis Henry, *Ancient Society*; 崔達坤·鄭東浩 譯, 《古代社會》(玄岩社, 1979).

6) 李清源, 《朝鮮社會史讀本》(東京; 白楊社, 1936).

金洸鎮, 〈高句麗社會의 生産樣式—國家의 形成過程을 中心する—〉(《普專學會論集》 3, 1937), 759~766쪽.

엔겔스와 마르크스에 의해 제시된 역사발전론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이었으며, 특히 국가사회로의 발전·전개에 대한 견해는 백남운이 주장한 내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이같은 인식은 이후 해방과 분단의 상황속에서도 큰 변화없이 남북한학계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남한의 경우 한국사 전반에 걸친 유물사관적 인식은 배제되었지만 국가 형성기까지의 역사의 발전 단계를 설정하는 데는 기왕의 백남운과 사회경제사학자들이 제시한 단계 및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즉 신민족주의를 표방한 孫晋泰의 경우 고대사회의 발전을 씨족공동사회-부족사회-부족국가-部族聯盟王國-貴族國家로 상정하였는데,⁷⁾ 이같은 이해는 모르간의 진화주의적 발전론에 입각한 엔겔스의 체계가 전제된 인식이었다. 손진태의 이러한 발전 단계론은 많은 영향을 끼쳐 이후 한국사의 여러 개설서에도 반영되어 계속 유지되었다.⁸⁾

그런데 국가의 기원과 형성에 관한 인식이 보다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의 일이었다.⁹⁾ 하지만 발달 단계론의 면에서는 여전히 기왕의 틀을 답습하여 부족국가-부족연맹-고대국가로 성장 발전하였다고 봄으로써 당시 서구학계의 주된 흐름이 소개되거나 적용되는 단계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특히 기왕에 사용되어온 ‘부족국가’와 ‘부족연맹’의 개념과 내용이 모호하게 처리됨으로써 다음 단계인 고대국가의 성격과 개시시점에 관해서도 불분명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는 백남운이 제시한 발달

李北滿, 《李朝社會經濟史研究》(大成出版社, 1948).

全錫淡, 《朝鮮經濟史》(博文出版社, 1949).

이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형성 이전 단계를 원시사회로 처리하고 있으며 최초 국가 단계의 성격문제에 대해서는 백남운과 이청원 등은 노예제사회로 이해한 것에 대해 김광진과 전석담 등은 노예제 결여와 봉건제로의 비약 등의 견해를 제시하여 이후 북한학계의 사회성격 논쟁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

7) 孫晋泰, 《朝鮮民族史概論》上(乙酉文化社, 1948).

——, 《國史大要》(乙酉文化社, 1949).

8) 李仁榮, 《國史要論》(金龍圖書會社, 1950).

韓祐勳·金哲堧, 《國史概論》(明學社, 1954).

李弘植·申奭鎬·曹佐鎬·韓祐勳, 《國史新講》(一潮閣, 1958).

9) 金哲堧, 《韓國古代國家發達史》(《韓國文化史大系》1 民族·國家史篇,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64).

단계와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의 이해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서자 이같은 발달 단계론에 대하여 특히 ‘부족국가’라는 용어에 문제점이 있음이 제기되면서 이후 한국 고대의 국가 기원과 형성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즉 혈연적 유대관계에 기반을 둔 씨족과 부족이라는 개념이 이것의 파괴를 전제로 한 국가라는 개념과는 합성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즉 복합적 계층사회인 國家를 규정하는 용어와 혈연적 단순사회를 표현하는 용어인 ‘部族’이 결합되어 사용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¹⁰⁾ 부족국가라는 개념은 우리 나라 역사의 발전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가지고 도출해낸 것이 아니고 인류학의 개념을 차용하여 우리 역사에 적용시킨 것이었다. 역사의 발전 단계를 설정하고 그 시대의 특성을 개념화하는 용어를 선택할 때에 꼭 인류학 이론만이 옳은 것은 아니며, 또 우리 나라의 특성만을 열거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역사의 전반적인 전개과정에서 일관된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개념의 용어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이를 마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과정과 서로 대비하거나 또는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비슷한 개념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따라 막스 베버(Max Weber)의 국가 발전 논의¹¹⁾를 수용하여 부족국가 대신에 ‘城邑國家’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¹²⁾ 성읍국가는 서양의 都市國家(City-State), 중국의 邑制國家¹³⁾ 등의 개념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씨족제-성읍국가-領域國家-大帝國이라는 계기적 단계론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같은 성읍국가론을 수용하여 성읍국가-聯盟王國-

10) 金貞培, 앞의 글(1973), 67쪽.

11) Max Weber, 《古代農業社會》(1909); 《古代社會經濟史：古代農業事情》(東洋經濟新報社, 1959).

12)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上·下(《韓國學報》2·3, 1976).

13) 이 용어는 宮崎市定이 제시한 씨족사회-도시국가-영역왕국-대제국의 계기적 발전론을 松丸道雄이 중국사에 적용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松丸道雄, 〈殷周國家の構造〉, 《岩波講座 世界歴史》4, 岩波書店, 1972).

王族 중심의 귀족국가로 성장 발전하였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¹⁴⁾ 이 견해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묘제인 고인돌을 권력의 소유자가 나타난 하나의 징표로 보고, 나지막한 구릉에 土城을 쌓고 살면서 성밖의 평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지배해나가는 정도의 사회를 성읍국가에 알맞은 존재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유럽 등의 서양사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도시국가와 중국사에 등장하는 읍제국가를 엄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우리 나라의 성읍국가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도시국가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성읍국가라고 할 경우에 우리 나라의 역사에서도 도시국가의 여러 특징이 그대로 표출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성읍국가론은 성읍이라는 용어만이 등장할 뿐 그 내용의 실체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우리 나라에도 서양 고대의 도시국가가 존재했던 것처럼 짐작하게 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성읍국가를 'City-State'로 칭할 수 없어 'Walled-Town State'라고 한 단계 낮추어 표현¹⁵⁾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도시국가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우리 나라에서 성읍국가라는 것은 전형적인 도시의 발달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¹⁶⁾ 특히 성읍국가의 단계는 고고학적인 면에서 고인돌과 靑銅器文化가 언급되고 있으나 성읍국가에 부응하는 구체적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서양의 인류학에서 발달한 정치발전 단계론을 원용하여 한국 고대사의 이해를 보다 심화시키는 일련의 연구가 제시되었다. 즉 국가가 형성되기 바로 전단계 사회의 성격과 의미를 강조한 서어비스(E. R. Service)의 정치발전 단계론을¹⁷⁾ 수용하여 이를 한국 고대국가의 기원과 형성문제와 관련하여

14) 李基白, 《韓國史新論》改正版(一潮閣, 1976).

15) 李基白, 위의 책; Translated by E. W. Wagner with E. J. Shultz, *A New History of Korea*, Ilcho-kak, 1984.

16) 金貞培, 〈韓國史와 城邑國家論의 問題〉(앞의 책), 311쪽.

도시와 관련된 특성은 기본적으로 인구의 집중, 복합성, 공적 조직, 비농업적 활동, 주변지역의 중심 등으로 앞서 제시된 성읍국가의 개념과는 연결되기 곤란함을 보여준다.

17) Service E. R.,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 An Evolutionary Perspective*, New York ; Random House, 1971.

君長社會論을 주장한 것이 그것이다.¹⁸⁾ 즉 삼한사회의 성격을 문헌에 나타난 인구수와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토대로 하여 청동기문화와 石棺墓 및 土壙墓 문화에 기반을 둔 군장사회(Chiefdom)로 파악하였다.¹⁹⁾ 또한 프리드(M. Fried)의 정치발전 단계 유형을²⁰⁾ 원용하여 衛滿朝鮮은 2차국가(Secondary State)로서 征服國家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보다 앞선 箕子朝鮮 즉 濊貊朝鮮 후기 단계는 초기국가(Pristine Stat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견해를 따른다면 한국에서 고대국가의 형성시기를 최소한 기원전 4~3세기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론의 도입과 적용이라는 면에서 국가발달 단계론에 관한 논의를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시켰다고 할 수 있다.²¹⁾

이같은 논의의 뒤를 이어 서어비스의 견해를 신라국가 형성과정에 적용한 연구성과가 나오게 되었다.²²⁾ 이에 의하면 신라사회의 발전을 村落(酋長)社會 단계의 斯盧六村, 촌락사회의 연맹인 斯盧小國 단계, 사로국을 맹주국으로 하는 辰韓 小國聯盟 단계, 사로국의 진한 諸小國 정복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취프덤이라는 용어를 ‘추장’이라 번역한 이 연구는 추장이라는 용어가 우리 나라 역사에는 낯선 것이어서 거리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취프덤론에서 설정한 단계의 정치수준과는 서로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념이 모호한 소국이라는 용어로서 몇 개의 정치발전 단계를 설명함으로써 城邑國家論에서 제시한 단계론을 차용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논리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편 국가 발달 단계론과 관련하여 플래너리(Kent V. Flannery)가 제시한 국가 형성에 관한 이론

18) 金貞培, 〈君長社會의 發展過程 試論〉(《百濟文化》 12, 1979; 앞의 책, 192~208쪽).

19) 金貞培, 〈三韓社會의 ‘國’의 解釋問題〉(《韓國史研究》 26, 1979; 위의 책).

20) Morton H. Fried, *The Evolution of Political Society*, New York; Random House, 1967.

프리드가 제시한 정치발전 단계는 Egalitarian Society(평등사회)–Ranked Society(서열사회)–Stratified Society(계층사회)–State Society(국가사회)로 나뉘고 있다.

21) 프리드가 제시한 Pristine State(1차국가)라는 표현은 원초적인 국가라는 의미로서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 발전에 의해 스스로 성립된 국가를 의미하며, Secondary State(2차국가)는 1차국가의 주변부에서 이들의 영향에 의해 성립된 후속국가를 의미한다.

22) 李鍾旭, 《新羅國家形成史研究》(一潮閣, 1982).

을²³⁾ 위만조선에 적용하여 위만조선이 바로 무역과 교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 단계임을 지적한 견해도 있다.²⁴⁾

이같은 정치발전 단계론은 모두 미국의 新進化主義 이론에²⁵⁾ 근거한 것으로서 국가 이론에 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면서 내용의 폭과 깊이가 더해졌는데²⁶⁾ 이러한 논의에 대한 비판도 최근 제기되고 있다.²⁷⁾ 신진화주의 인류학 이론을 한국사에 적용하려고 한 학자들의 일부 견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장사회를 하나의 정형화된 사회 단계로 보는 시각은 수정되어야 하며 군장사회는 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동적인 사회변화의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그것이다.²⁸⁾ 또한 이 비판에서는 無頭社會로부터 官僚國家로 이행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중간 수준의 사회로서 군장사회를 이해한 얼(T. Earle)의 견해를²⁹⁾ 소개하면서 기왕의 논의에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기왕에 진행된 논의는 국가와 국가 이전의 단계를 어떤 각도에서 풀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內的 발전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고찰한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왕의 연구에서는 先史時代와 역사시대를 연결하는 시점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고고학 자료와 문헌 자료를 연결하여 理論과 假說을 활용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역사 전개

23) Flannery Kent, "The Cultural Evolution of Civilization",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3, 1972, pp.399~426.

24) 崔夢龍, 〈韓國古代國家形成에 관한 一考察—衛滿朝鮮의 例—〉(《金哲俊博士回甲記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3). 최몽룡은 Chieftdom을 '族長社會'로 번역하고 있다.

25) 이와 관련된 논의는 주 1)의 연구사 관련 글 참조.

26) 김광익, 앞의 글, 30쪽.

金貞培, 〈劍・鏡・玉과 古代의 文化와 社會〉(《文山金三龍博士華甲記念 韓國文化와 圓佛教思想》, 1985; 앞의 책, 209~222쪽).

李松來, 〈국가의 정의와 고고학적 판단기준〉(《제2회 韓國上古史學會 학술발표회 요지》, 1988).

金光億, 〈國家形成에 관한 人類學 이론과 모형〉(《韓國史 市民講座》 2, 1988), 165~186쪽.

27) 全京秀, 앞의 글, 589~599쪽

28) 위와 같음.

29) Earle Timothy, "Chieftdoms in Archaeological and Ethnohistor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6, 1987, pp.279~308.

의 다양한 양상을 다채롭고 역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와 중국 측의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바탕 위에서 이론과 가설을 활용 검증하였다는 점이 기왕에 이루어진 연구의 특색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⁰⁾

한편 앞서의 비판에서 신진화론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일부의 편파적인 견해만을 취했거나 진화론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³¹⁾ 또한 서서비스의 사회 정치적인 진화론적 모델은 일부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사 시대 사회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재삼 지적되고 있다.³²⁾

어쨌든 국가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은 지역적으로나 문화 단계적으로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군장사회 단계와 국가 단계는 문헌 자료에서 일차적 구분이 가능하며 고고학적으로도 각각의 단계가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³³⁾ 그리고 이를 위한 개념틀로서 신진화주의 이론은 여전히 유용한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장사회에 관한 논의는 청동기시대부터 시작하여 삼한사회 등을 포괄하는 범위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삼한사회 및 그에 준하는 비슷한 수준의 政治體의 성격은 국가 형성을 지향하는 정치체로서³⁴⁾ 국가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들 여러 정치체가 각각 국가 형성을 지향하는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선행하는 군장사회의 발전에 의하여 고조선 후기·위만조선·고구려·부여·백제·신라·가야 등의 여러 정치체가 국가 단계로 성장하여 다양한 역사를 전개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金貞培〉

30) 金貞培, 〈韓民族의 起源과 國家形成의 諸問題〉(《國史館論叢》 1, 國史編纂委員會, 1989), 14~26쪽.

31) 崔楨菴, 〈新進化論과 韓國上古史 解說의 批判에 對한 再檢討〉(《韓國上古史學報》 16, 1994), 7~25쪽.

32) 姜봉원, 〈국가와 군장사회 사이의 중간 단계에 대한 고찰〉(《韓國考古學報》 33, 1995), 7~11쪽.

33) 金貞培, 앞의 글(1989), 14~26쪽.

34) 金貞培, 위의 글, 19~21쪽.

2. 국가 형성 이론의 한국사 적용문제

한국 고대의 국가 기원과 형성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部族國家論・城邑國家論 및 君長社會論은 외국 인류학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특정 지역, 특정 시대의 역사를 국가의 단계로 파악하는 것이 되므로 국가 성립 이전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규정할 것인가라는 점과 직결되어 있는 셈이다.

국가의 기원이나 성립은 일반적으로 糧食生産 단계에서 都市革命을 거쳐 文明 단계로 진입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¹⁾ 특히 동식물의 家畜化와 栽培가 인구증가를 촉진하였고, 이것이 사회경제적 단위를 변화시켰으며, 금속문화를 수용하면서 군사력이 대두하여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고, 경제적 지배를 위한 강력한 조직이 정치상에 반영되어 국가가 탄생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런데 이같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 대해 모르간(L. Morgan)은 領土・國民・財産을 언급하였고, 이와 함께 軍隊의 중요성이 여러 학자에 의해 강조되었으며,²⁾ 기술적・경제적 독립과 함께 정치적 요소도 강조되었다. 한편 국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自然發生論도 제기되었다. 즉 농업의 발달에 의한 충분한 양식 확보를 통하여 노동의 專門化가 진행되고 이는 정치적 통합을 초래하여 결국 국가가 발생된다는 논리이다.³⁾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는 자연발생적이라기 보다는 강력한 투쟁, 즉 征服과 같은 전쟁을 통하여 성립된다는 논리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⁴⁾

1) 이같이 도시(city), 문명(civilization), 국가(state)의 문제들은 일찍이 인류학계에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대표했던 주제들이었다(K. C. Chang, *Shang Civilization*, Yale Univ., 1980, pp.364~365).

金貞培, 〈韓國史와 城邑國家論의 問題〉(《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高麗大出版部, 1986).

2) Redcliffe Brown, *African Political System* XIV, in Fortes, M and Evans Pritchard, E. E.(ed), 1940.

3) 金貞培, 〈韓國古代의 國家起源論〉(《白山學報》14, 1973 ; 앞의 책, 56~57쪽).

4) Carneiro, R. L., "A Theory of the Origin of the State" *Science*, Vol. 169, 1970.

한동안 학계에서는 서어비스(E. R. Service)의 君長社會(Chiefdom)이론을 우리 역사에 적용하여 국가의 발달 단계를 논의하면서 특히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첫째는 국가와 국가 이전 단계를 어떤 각도에서 풀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내적 발전의 입장에서 보아왔다는 점이다. 이는 그 동안의 연구가 연속의 측면을 다소 외면하고 단절을 강조하여 그 특징을 표출시킨 면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둘째는 고대의 역사가 선사시대로부터 역사시대로 면면히 그 맥을 이어왔으므로 고고학 자료와 문헌 자료를 연결시킬 때 가능한 한 이에 필요한 이론이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즉 우리 역사에 흩어져 있는 국가의 탄생 전후의 자료들을 어떤 이론의 틀과 접합시키는 것이 보다 순리에 가까운 것인가를 고려하여 왔던 것이다. 이론의 도입과 적용에 대한 최근의 비판은 이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것이지만 서어비스가 제시한 쿼프덤의 개념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⁵⁾ 잘못이다. 오히려 그 개념은 내용의 폭과 깊이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전히 유용하다는 점을⁶⁾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어비스가 제시한 쿼프덤이라는 용어는 複合社會(Complex Society)를 설명하는 데 유익한 개념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얼(T. Earle)은 이를 無頭社會에서 官僚國家로 이행하는 과정의 단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카네이로(R. L. Carneiro) 역시 국가의 전단계로 쿼프덤을 설정하고 있다. 카네이로가 自治村落(Autonomous Villages)으로부터 쿼프덤과 국가를 거쳐 제국(Empire)에 이르는 정치발전 과정을 의심없는 사실로 인정하고⁷⁾ 있음은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어비스는 진화론의 입장에서 사회발전을 논한 이래⁸⁾ 프리드(M. Fried)가 제기한 部族(Tribe)의 개념문제에 대한 비판을⁹⁾ 수용하여, 향

5) 全京秀, <신진화론과 국가형성론>(《韓國史論》 19, 서울대, 1988), 576쪽.

6) Earle Timothy, "Chiefdoms in Archaeological and Ethnohistor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6, 1987, p.279.

7) Carneiro R. L., "The Chiefdom : Precursor of the State", in G. D. Jones and R. R. Kautz(eds.), *The Transition to Statehood in the New World*,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81, p.67.

8) Service E. R.,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An Evolutionary Perspectives—*, New York ; Random House, 1962.

9) Fried Morton, *The Notion of Tribe*, Cummings ; Menlo Park, 1975.

후의 더 훌륭한 연구가 있을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아 인류사회의 발전과정을 평등사회(Egalitarian Society)－계층사회(Hierarchical Society)－고대문명 또는 古典帝國(Archaic Civilization or Classical Empire)으로 그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¹⁰⁾ 여기서 계층사회가 취프덤을 의미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이후의 그의 연구 진행과정에서 취프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¹¹⁾ 이같이 취프덤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렌프류(C. Renfrew)는 이를 ‘當世風の概念’¹²⁾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인 연구나 인류사회의 진화를 체계화하는 데¹³⁾ 취프덤은 여전히 중심적인 개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이를 대체하는 용어로서 中間領域社會(Middle-Range Society)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¹⁴⁾ 취프덤을 두 개 혹은 세 개의 형태로 나누어 파악하기도¹⁵⁾ 하였다. 하지만 이같은 구분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접근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취프덤 개념을 변형시킨 것일

10) Service E. R., “Discussant War and Our Contemporary Ancestors”, in M. Fried, M. Harris and R. Murphy(eds.), *War : The Anthropology of Armed Conflict and Aggression*, New York ; The Natural History Press, 1967, pp.167.

11) Service E. R., *Origins of the State and Civilization*,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1975.

여기서 서어비스는 앞서 수정한 단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즉 Egalitarian Society, Archaic Civilization의 단계는 있으나 Chiefdom에 해당하는 Hierarchical Society의 편목은 없으며 소항목으로 Chiefdom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12) Renfrew C., “Monument, Mobilization and Social Organization in Neolithic Wessex”, in C. Renfrew(ed.), *The Explanation in Culture Change—Models in Prehistory*, Pittsburgh ; Univ. of Pittsburgh Press, 1973.

13) Johnson, E. W. and Earle T. K.,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y*, California ; Stanford Univ. Press, 1987.

14) Feinman G. and J. Neitzel, “Too many Types : An Overview of Sedentary Prestate Society in the Americas”, *In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7, 1984.

15) Steponaitis, V. P., “Location Theory and Complex Chiefdoms : A Mississippian Example”, *In Mississippian Settlement Patterns*, New York ; Academic Press, 1978. 여기서는 단순(Simple)과 복합(Complex) Chiefdom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Canerio, R. L., “The Chiefdom : Precursor of the State”, *The Transition to Statehood in the New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에서는 최소(minimal), 전형적(typical), 최대(maximal) Chiefdom으로 구분하고 있다.

뿐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¹⁶⁾

한편 취프덤을 우리 역사에 접목시킬 때 이를 어떤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기왕의 연구자들이 이를 酋長·族長·酋邦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였으나 ‘君長’이라는 표현이 사료에서 설명되고 있는 여러 내용을 포괄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¹⁷⁾ 즉 취프덤이 정치사회의 진화과정에서 국가의 바로 전단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취프덤을 낮은 단계의 사회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단계의 성격은 국가로의 이행과 진입을 고려할 때 중국 사서 및 우리 나라 자료에 나타나는 군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¹⁸⁾ 또한 이 용어가 포괄하는 대상은 그 같은 성격을 가장 현저하게 보여주는 三韓社會이지만, 이와 함께 광의로는 청동기시대도 이 시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취프덤이 지역에 따라서 존속기간이 적어도 한 시대 이상의 복합적인 時代相을 반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金貞培〉

3. 초기국가의 성격

1) 국가 기원 및 형성이론

한국 고대사의 전개과정에서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국가가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할 때는 기왕에 소개된 여러 이론들을 검토해볼 필

16) 강봉원, 〈국가와 군장사회 사이의 중간 단계에 대한 고찰〉(《韓國考古學報》 33, 1995), 10~11쪽.

17) 추장은 이중욱이, 족장은 최몽룡이, 그리고 추방이란 표현은 尹乃鉉이 사용한 것으로 결국 군장사회로 표현한 김정배의 그것과 동일 대상에 대한 용어의 차이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파악된다.

18) 이 용어가 관료국가의 성격에 근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정치체의 발전 과정을 반영한 구체적인 자료의 범위에서 용어의 선택과 의미부여가 필요함은 기지의 사실이다.

요가 있다. 국가의 기원문제를 해명하고자 할 때 하나의 이론으로서 모든 내용이 설명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가 기원과 관련된 이론은 크게 葛藤理論과 統合理論의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¹⁾ 특히 서어비스(E. R. Service)는 개개의 이론들을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갈등이론을 개인갈등, 社會間 갈등, 社會內 갈등으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기본적으로 그의 입장은 갈등이론에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개인갈등에는 社會契約論과 社會進化論이 있는데 이는 모두 고전적인 이론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국가의 기원을 논의한 것이 아니고 또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도 아니며 인간의 본성과 이상적인 사회의 본질, 또는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논한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이에 비해서 사회간의 갈등은 개인갈등보다 현대적이고 철학적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征服說이나 다아윈(C. Darwin)의 淘汰說도 제한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집단과 집단 그리고 사회간의 갈등이라는 면에서 문제의 기본성격에 많이 근접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遊牧民族의 農耕民 정복과 같은 승자의 오랜 생존이 반드시 국가의 기원을 해명하는 길만은 아니라고 하였다. 일찍이 오펜하이머(F. Oppenheimer)는 정복이론을²⁾ 주장하였는데 예컨대 軍隊는 전쟁 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시에도 존재하며 이것이 갈등에서만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 물론 정복활동으로 말미암아 피정복민으로부터의 경제적 착취가 엄청난 富의 증대를 가져오지만 정복이 국가 형성을 초래하는 유일한 매카니즘이 아니라는 비판이 루이(R.

1) Service E. R., "Classical and Modern Theories of the Origins of Government", in R. Cohen and E. Service(eds.) *Origins of the State*, Philadelphia ISHI, 1978.

이같은 견해 이외에 비슷한 범주에서 보다 세분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분류한 견해도 있다. Wright는 관리이론, 내부갈등이론, 외부갈등이론, 통합이론을 소개하고 있다(Wright H. T., "Toward an Explanation of the Origin of the State", in R. Cohen & E. Service(eds.) *op. cit.* 1978, pp.50~57). Classen과 Skalnik은 사회적 불평등에 기초한 국가, 그리고 사회계약의 어떤 형태에 근거한 국가로 대별하고 있다(Classen H. J. M. & P. Skalnik, "The Early State: Theories and Hypothesis", in Classen & Skalnik(eds.) *The Early State*, Hague Mouton, 1978).

2) Oppenheimer F., *The State: Its History and Development Viewed Sociologically*, New York; Vanguard Press, 1926.

H. Lowie)에 의해 제기되었다. 루이는 정복이라는 도움없이도 국가가 발생한 많은 예가 있으며 정복보다는 자발적인 ‘聯合’이라는 것이 국가의 형성을 유도한다고 파악하였다.³⁾

사회 내의 갈등에는 계급갈등과 친족집단갈등이 있다. 그런데 계급투쟁이 국가 형성의 주요 요인이라는 주장이 지니고 있는 난점은 원시세계 어디에서도 상품생산과 사유재산이 계급제도와 국가 성립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실증할 수 없다는 점이다.⁴⁾ 이러한 계급투쟁 이론의 결점을 수정 보완하면서 제시된 차일드(G. Childe)와 프리드(M. Fried)의 견해는 친족집단투쟁이라고 명명되는데, 고고학과 인류학적 실증방법 및 과학적 분석을 가한 점이 평가되고 있다. 차일드는 문명의 흥기에서 차지하는 都市의 비중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중시한 것은 공동체의 경제구조와 사회조직에 영향을 미친 기술적·경제적 진화의 문제였다. 더욱이 월등한 생산력은 군대와 정치관료로 구성되어 있는 비생산계급·성직자·사업가들을 출현시킬 수 있는 식량의 사회적 잉여에 있다고 보았다. 한편 개인보다 친족집단의 계층화에 주목한 사람이 프리드이다. 그에 의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계층들은 부유한 자본가와 가난한 노동자에 의하여 형성되지 않고 전친족집단들로 형성되는데 이 친족집단들 중에서 몇몇은 우선적으로 전략적 경제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내부의 논쟁과 갈등이 야기되며 이에 따른 점증하는 대립은 비친족의 강압적인 매카니즘에 놓여지게 된다고 하였다. 서어비스는 이에 대해 프리드가 국가기구를 획득하였거나 이의 형성과정에 있는 계층사회의 예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⁵⁾

통합이론으로 분류되는 견해 가운데 자주 논의되는 것은 카네이로(R. L. Carneiro)의 領域限界理論과 비트포겔(K. A. Wittfogel)의 水力灌溉理論이다. 한 계이론은 비옥한 땅으로 이루어진 영역이 주변에 산이나 사막 등 비생산적인 장벽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는

3) Lowie R. H., *The Origin of the State*, New York ; Harcourt Brace, 1932, pp.107~111.

4) Service E., *op. cit.*, 1978, p.26.

5) Service E., *Ibid.*, p.27.

것이다. 한편 군사적인 장벽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 인하여 내부적인 통합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비트포겔의 수력이론은⁶⁾ 마야문명을 제외한 고전문명이 水力制度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서, 그의 이론은 한동안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방대한 양의 물관리가 필수적으로 효율적인 조직을 가져오고 대규모의 집약적인 경작과 협동을 통하여 국가경영의 방법이 독립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유목적인 형태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으며 灌溉가 국가의 형성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반증도 있다. 그리고 관개와 국가의 기원과의 선후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와 같은 국가 기원 이론과 관계된 논의의 전개과정을 염두에 두고 프리드와 서어비스의 이론을 검토하면 국가 기원의 실상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다. 프리드는 국가가 출현하는 과정을 진화론의 입장에서 平等社會(Egalitarian Society), 序列社會(Rank Society), 階層社會(Stratification Society), 國家(State Society)의 4단계를 설정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⁷⁾ 이러한 여러 단계의 변화와 발전에서 그는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한 사회의 조직이 새로운 사회·문화적 조직으로 변화되었음을 시사하는 제도적 발전이 무엇인가, 둘째 그러한 제도적 발전이 개화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셋째 이상의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는 인간이 의식하여 개입하기 전에 일어난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평등사회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회이고 따라서 어떠한 경제적 역할이나 정치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회이다. 그러므로 가정이 생산의 담당자이고 아무런 전문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같은 평등사회가 서열사회로 진입하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평가받는 地位에 제한이 따르기 시작하면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제한을 받게되는 것은 出生上의 서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6) Wittfogel K. A., "Developmental Aspects of Hydraulic Societies", in J. Steward(ed.), *Irrigation Civilization : A Comparative Study*, 1955, pp.43~52.

7) Fried M. H., "On the Evolution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the State", in S. Diamond(ed.), *Culture in History : Essays in Honor of Paul Radin*,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1960, pp.713~731.

많다. 이 경우 가장 단순한 형태가 장자상속제, 말자상속제 같은 것이다. 이러한 출생서열에 의해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피라미드형의 사회가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초가정적인 재분배제도를 갖게 된다. 이것은 평등사회가 호혜경제였다는 사실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서열사회에서 재분배를 담당하는 사람은 여전히 경제적 착취나 정치적 권한이 허용·부여되지 않으며 혈족집단의 범위 내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의 기능은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것이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分配하는 것이므로 이 사회의 지도자의 처지에서 보면 그는 축적욕과 사회의 재분배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들은 정치적 권한이 없으며 오히려 권위면에서는 종교적 신성성으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들은 사회 내의 생산물의 재분배가 公共儀式과 연결되어 있어 더욱 신성한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권위는 강제력의 행사가 허용되는 그러한 권위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서열사회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평등사회에서 보여주는 여러 특징이 그대로 잔존해 있으며, 한편으로는 儀式적 기능과 이에 따른 專門化로 인하여 신분이 분화되는 요인을 안고 있었다.

계층사회는 위에서 언급한 서열사회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거의 구분이 되어 오지 않았다. 두 사회의 본질적인 차이는 서열사회가 신분상의 분화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신분에 정치적·경제적 특권이 부여되지 않는 점이다. 그러나 계층사회에서는 사회의 구성원과 생계수단간에 분화적인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분화적인 관계란 어느 구성원에게는 戰略的 資源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다른 사람은 여기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을 말한다. 후자의 경우에 전략적인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勞動地代·現物稅 등의 세금을 내고서야 접근이 가능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층화로의 길은 어떻게 하여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란트만(Landtman)은 개인적 재능에 따라 재산축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의해서 계층화가 일어났다고 보았는데, 프리드는 여기에 반대하고 오히려 유능한 인제는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준다고 보았다. 어느 의미에서

는 국가조직을 가진 문화와의 접촉을 통하여 단순한 사회는 계층사회로 변모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드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는 水力農業의 역할이다. 토지와 물이라는 전략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사회의 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수력농업이라는 생태학적 조건이 평등사회에서 서열사회로 발전하는 데에도 하나의 계기가 되며, 또한 반드시 계층사회가 서열사회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프리드는 수력농업에 있어서 인구과잉이나 자원의 결핍이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력농업 자체가 계층화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생태학적 방식으로 문제를 보게 되면 농업 위주의 정착사회라는 형태는 외부와의 전쟁시에도 방어에 효과적이다. 이같은 군사적 요인들은 수력농업사회에서 계층화가 발생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사회 내에서 부계나 모계 등 어느 한쪽으로 居處가 결정되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라도 거처의 분리와 系統의 구분들이 또한 계층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프리드는 계층화된 사회가 되어야 비로소 강제력이 나타나며 사회의 통제력과 권력조직이 超血緣的 기반위에서 기능할 때 국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국가를 初期國家(Pristine State)와 二次國家(Secondary State)로 구분하면서 古典文明이 일어난 지역을 초기국가로 보고 征服國家 등과 같은 형태를 2차국가로 보았다.

서어비스는 진화주의 입장에서 국가의 발전 단계를 群社會(Band), 部族社會(Tribe), 君長社會(Chiefdom), 國家(State)로 발전해 나간다고 보았다. 이는 1962년에 간행된 그의 저서에서 피력된 것으로⁸⁾ 진화론의 입장에서 사회발전을 논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이후 프리드가 부족(Tribe)에 관하여 비판하자 1967년의 간단한 논문에서 이를 수용하는 한편 퀴프덤과 국가의 구별에 어려움이 있음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향후의 수정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平等社會(Egalitarian Society)－階層社會(Hierarchical Society)－古代文明 또는 古典帝國(Archaic Civilization or Classical Empire)의 단계를 설정하였다.⁹⁾ 여기서 계층사회가 퀴프덤을 의미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그의 연구진행

8) Service E. R.,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New York ; Random House, 1963 ; (second edition) 1971.

과정에서 쿠프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서어비스가 이해하고 있는 계층사회로서의 쿠프덤의 성격은 앞서의 평등사회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한다. 첫째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하여 잉여물의 축적이 가능하고 아울러 인구밀도가 조밀하여 한층 복잡한 사회로 변모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정치적·경제적·종교적인 여러 활동을 조정하는 중앙기구의 출현으로 더욱 조직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쿠프덤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특징적인 사실을 지적한다면 경제적으로 재분배사회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라고 한다. 지역적으로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대규모의 협동과 개인적인 기술의 전문화로 노동의 분업이 이루어진 것 등은 앞서의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변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잉여물의 축적이 가능하고 집단의 수준에서 교환이 발생한 것도 중앙통제기구와 생산·교환·분배를 조정하는 인물을 필요로 하였음에 틀림이 없으며, 따라서 쿠프덤사회는 결국 불평등사회이고 분배를 담당하는 자는 자신의 역할에 따라 일정한 권위를 획득하여 영속적인 신분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

쿠프덤사회의 쿠프덤은 사회·정치적 중심이 되는 집무소를 따로 가지고 있으며 그의 직책은 장자상속 등에 의해 세습이 되고 있다. 결국 쿠프덤사회는 사회통합적 측면에서는 불평등사회이고 경제적 측면에서 재분배사회이며

9) Service E. R., "Discussant War and Our Contemporary Ancestors", in M. Fried, M. Harris and R. Murphy(eds.), *War : The Anthropology of Armed Conflict and Aggression*; New York, The Natural History Press, 1967, pp.167. 서어비스가 기왕에 제시한 그의 단계론에 대한 나름의 수정은 따라서 1967년에 나타나고 있다. 앞서 전경수는 서어비스가 1971년에 그의 정치발전 단계론의 내용을 수정하여 Chieftdom과 관련된 견해가 파기되었다고 이해하였으나(全京秀, <신진화론과 국가형성론>, 《韓國史論》 19, 서울대, 1988), 이는 1967년에 제시된 것이고 이후 1975년에 간행한 다른 저서에서 서어비스는 Chieftdom을 여전히 논급하고 있다(Service, E. R., *Origins of the State and Civiliza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75).

10) Service E. R., *Origins of the State and Civiliza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75.
여기서 서어비스는 앞서 수정한 단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즉 Egalitarian Society, Archaic Civilization의 단계는 있으나 Chieftdom에 해당하는 Hierarchical Society의 편목은 없으며 다만 소항목으로 Chieftdom은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中央統制의 사회이다. 아울러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머니즘적인 관행이 잔존하나 보다 규모가 큰 사회적인 宗教儀式이 거행되는 사회이다. 취프덤의 지위와 司祭의 지위는 반드시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권위의 양면에서 함께 흥기한 것처럼 이해된다. 이 때문에 취프덤사회는 거의 합의하에서 神政단계의 사회라고 불리기도 한다.¹¹⁾

서어비스는 국가 기원에 관한 견해를 표명하면서 우선 기원에 중요 요인으로 논의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첫째, 전쟁과 정복의 문제로 이 요인은 인류사에서 늘 있는 문제이므로 국가의 기원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둘째, 灌溉와 생산의 증대가 국가의 기원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이것은 국가 이전과 이후에도 일어나는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셋째, 인구의 성장으로 이것도 국가가 출현하는 필수조건일 뿐이지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넷째는 都市化로 국가가 도시화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회의적으로 보고 도시는 국가 출현 이후에 등장한다고 보았다. 다섯째, 사회의 계층화로 초기 단계의 계층화가 경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 기원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였다.¹²⁾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불평등이란 근본적인 것이고 또한 개인의 여러 가지 능력에서 초래되는 것이므로 주변의 환경과 여기에서 초래되는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프리드와 서어비스의 견해를 비교해 보면 프리드는 국가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계층화를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본 데 대해서 서어비스는 인물의 지도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클라센(H. J. M. Classen)과 스칼닉(P. Skalnik)은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에 걸쳐 쟁점사항을 정리하였다.

11) 神政사회의 의미와 적용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일정한 인식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검토를 살펴보면 이는 군장사회, 국가, 변형된 과도기적 중간형태 등 여러 진화 단계의 사회에 적용되며 복합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정치적 조직의 유형을 명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Webster D., "On Theocracies", *American Anthropology*, 78-4, 1977, p.812).

12) Service E. R., *Origins of the State and Civilization*,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1975, pp.265~289.

30 I. 초기국가의 성격

- ① 국가의 진화에서 사회적 계급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 ② 초기국가에서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특성이 나타나는가
- ③ 초기국가의 출현과 발전에서 정복의 역할은 무엇인가
- ④ 초기국가의 진화에서 전쟁과 외적 투쟁의 형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 ⑤ 초기국가의 발달에서 인구증가와 압력의 영향은 무엇인가
- ⑥ 초기국가의 발생과 무역 및 시장의 발달 사이에 어떤 종류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 ⑦ 초기국가에서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⑧ 초기국가의 발달과 도시 및 도시생활의 발생 사이에 어떤 종류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우선 ①의 사회적 계급의 경우 사회적 불평등은 초기국가 이전 단계에도 존재하였으며 이 단계에 와서 한층 구체화되었을 뿐이며, 불평등의 유지가 초기국가의 목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조직의 발달에 꼭 필요한 조건도 아니라고 보았다. ②의 경우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사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시초의 초기국가와 전형적인 초기국가에서는 발견되지만 변이적인 초기국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의 정복의 문제는 자료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즉 몽고·스키타이·불타이 등이 이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④의 경우 때로 전쟁과 정복 등의 시도는 이와 관련되는 사람들의 경영관리와 정치제도의 발달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⑤의 인구증가는 보다 복잡한 정치조직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인구증가와 지역제한 사이의 긴장은 새로운 사회구조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⑥의 무역 및 시장의 발달은 모든 초기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초기국가의 형성요인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⑦의 내적 갈등은 대개 국가의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때로 갈등의 해결은 힘에 의해 저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 ⑧의 도시의 발생은 초기국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읍(Town)이나 도시(City)가 형성되지 않고도 초기국가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도시가 중요성을 갖게 된 것도 국가가 출현한 오랜 뒤의 일이라고 보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사의 전개과정에서 국가의 기원과 형성문제를 다룰 때에는 다양한 이론의 검토와 이의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군장사회와 국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라는 정치체를 상정할 때에는 한자문화에 속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나라를 뜻하는 ‘國’자와 王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나라를 뜻하는 국자는 원래 邦으로 표시하다가 漢代 이후에 국으로 표현이 바뀌었으므로 ‘國’자가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곧 오늘날의 국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 나라의 고대사를 기술한 중국측이나 우리측의 사료를 보면 분명 국가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국’이라고 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고, 또한 ‘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많은 사회도 실은 국가의 단계로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같은 사실은 삼한 사회의 70여 개 국명으로 나타나는 존재들의 단계가 君長社會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한층 발달된 사회, 예컨대 目支國이나 斯盧國 같은 집단이 뒤에 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다.¹³⁾ 즉 《三國志》東夷傳 韓條에 보이는 小國 또는 大國이라는 표현은 규모를 나타낼 뿐 국가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국’자가 붙어 있다고 해서 전부 국가라고 보는 것은 발전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국’이란 국가 이외에도 지역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정치 집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¹⁴⁾ 따라서 한국사에 존재한 여러 정치체들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정치체들이 반영하고 있는 사회조직의 내용과 규모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국사의 초기에 존재한 여러 정치체들에 관한 자료는 중국측 자료가 대부분으로 이들 자료에서는 각 사회의 정치 지도자에 대하여 왕과 군장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다. 즉 다음 사료에서 보는 것처럼 王・侯・君王・君長 등으로 칭호가 세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칭호가 절대적인 기준

13) 金貞培, 〈三韓社會의 ‘國’의 解釋問題〉(《韓國史研究》 26, 1979;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高麗大 出版部, 1986, 223~229쪽).

14) 金兆梓, 〈封邑邦國方辨〉(《歷史研究》 2期, 1956).

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 발전의 과정을 추적하는 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왕에 관한 기사로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濊貊朝鮮 후기 단계와 위만 조선 관련 기록 및 부여와 삼한 관련 자료이다.

- A-① 朝鮮侯는 周나라가 쇠약해진 것을 보고 燕나라가 스스로 높여 王이라 칭하자 朝鮮侯도 역시 스스로 王이라 칭하였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 ② 그 때 朝鮮王 否가 왕이 되었다… 否가 죽자 그 아들 準이 왕위에 올랐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인용 《魏略》).
- ③ 그 후 40餘世가 지나 朝鮮侯 準이 참람되게 王을 칭하였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濊).
- ④ 準이 이미 왕을 僭稱한 후에 燕의 亡人인 衛滿의 공격을 받아 왕위를 빼앗기고 좌우의 宮人을 이끌고 바다로 달아나 韓地에 살면서 스스로 韓王이라 하였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 ⑤ 朝鮮王 滿이라는 사람은 옛날 燕지역 사람이다(《史記》권 115, 列傳 55, 朝鮮).

위의 사료에 조선후가 스스로 왕을 칭하였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는 전국 시대 燕과의 대결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기원전 4세기 경의 일로 이해되고 있다. 또 조선왕 否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왕을 칭하였다는 것은 중국과의 대결 과정에서 성장하는 조선의 정치 역량을 나타내주는 좋은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자료를 보면 왕호를 칭하게 된 상황이 “스스로 왕이라 이름하였다”라든가 또는 “함부로 왕이라 칭하였다”고 되어 있다. 즉 중국적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의 칭왕 사실은 중국에 복속되거나 포섭되어 그 대가로 왕호를 하사받은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성장을 통하여 自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자적 문화기반을 통하여 정치적 성장을 이룩한 이들이 나름의 역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중국과 대등한 정치·군사적 수준에서 교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朝鮮侯의 自稱爲王과 否, 準으로 세습되면서 僭號稱王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통치하고 있는

사회의 역량이 왕을 칭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같은 사실을 중국사회가 인정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정변을 통해 準王을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한 衛滿에 대해서도 《史記》朝鮮傳에 ‘朝鮮王’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같은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한편 준왕이 위만의 공격을 피해 南奔하여 삼한지역에 와서 ‘自號韓王’하였다는 기사를 위의 사정과 연결시켜 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준왕이 칭왕하였다는 기사는 앞에서 보았거니와 좌우궁인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피해 와서 스스로 韓王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피난해 오기 이전의 자기가 칭왕한 것을 마한지역에 와서 그대로 따른 관행이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삼한 지역과 관련된 왕으로는 辰王이 대표적 존재이다

⑥ 辰王이 目支國을 다스렸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⑦ 弁辰韓은 24國이다… 그 12國은 辰王에게 속하였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弁辰).

사료 ⑥의 진왕은 목지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나오고 있어 《後漢書》동이전에 나오는 ‘三韓의 總王’이라는 기록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삼국지》의 기록이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진왕과 결부된 나라가 삼한의 군장사회에서 국가로 나아가는 모습의 일부라고 여겨진다.

한편 부여의 경우 君王이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다.

⑧ 나라에는 君王이 있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⑨ 戶數는 5千이다. 大君王은 없지만 대대로 邑落에는 각각 長帥가 있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東沃沮).

위의 사료에서 부여의 경우 군왕이 있음에 비해 동옥저에는 大君王이 없고 단지 長帥들만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君王’이라는 존재가 곧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왕이라는 표현이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적 발전 수준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며, 이들 사회가 국가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왕과 관련된 기사와 달리 君長 관계 기사는 예가 많아 훨씬 분명한 뜻을 전해 주고 있다. 이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B-① 遼東太守는 곧 滿을 外臣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여 국경 밖의 오랑캐를 지켜 변경을 노략질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모든 蠻夷의 君長이 天子를 뵈고자 하면 막지 않도록 하였다(《史記》권 115, 列傳 55, 朝鮮).
- ② 馬韓은 서쪽에 있고… 각각 長帥가 있는데 큰 자는 스스로 臣智라고 이름하였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 ③ 그 풍속은 기강이 없어서 國邑에 비록 主帥가 있어도 邑落에 섞여 있어 능히 잘 제어하지 못하였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 ④ 弁辰 또한 12國인데 또 여러 작은 別邑들이 있다. 각각 渠帥가 있는데 큰 자를 臣智라 하였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弁辰).
- ⑤ 大君長이 없고 邑落에는 각각 大人이 있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挹婁).
- ⑥ 廉斯鏞은 辰韓 右渠帥이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所引《魏略》).

①의 자료는 위만이 外臣으로 있으면서 여러 蠻夷의 군장들이 천자를 뵈고자 할 때 이를 금지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의 군장들은 주변 사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음 사료의 내용과 연결된다.

眞番 옆의 여러 나라들(衆國)이 글을 올려 天子를 알현코자 하였으나 또 막혀서 통하지 못하였다(《史記》권 115, 列傳 55, 朝鮮).

이것은 한나라가 위만조선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운 내용으로서 남쪽의 여러 나라(衆國)들이 천자를 뵈고자 할 때 길을 가로막았다는 뜻이다.¹⁵⁾ 이러한 점에서 이 문구는 B-①의 문장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경우를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5) 판본에 따라 衆國이라는 표현은 辰國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진국도 衆國의 일부분이란 점에서 衆國의 의미로 파악하고자 한다.

여러 오랑캐의 君長들이 (中國에) 들어가 天子를 알현코자 하였다.
眞番 옆의 여러 나라들(衆國)이 글을 올려 天子를 알현코자 하였다.

위에 보이는 여러 오랑캐의 군장이라는 대상 속에는 진번 옆의 여러 나라들도 포함되는 광의의 해석이 가능하고, 범위를 좁힌다 하더라도 진번이나 衆國도 역시 군장이라는 지도자가 이끄는 단계의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사회의 규모와 세력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왕이 존재한 나라도 있었지만 대체적인 추세는 군장이 지배하는 가운데 점차 왕이 출현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B-②에서 ⑥까지의 자료는 각 지역 사회의 정치 지도자를 어떻게 명명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니와 명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국가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을 개별적으로 표현한 渠帥·長帥 등이 포괄적으로 군장이라는 표현으로 망라되고 있음을 사료 ①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삼한사회가 국가 형성을 지향한 여러 정치체의 복합체임을 감안할 때 이 사회들의 정치적 성격에 부응하는 지배체제는 국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이와 유사한 통치형태를 예상할 수 있다. 즉 目支國을 통치하는 辰王과 같은 존재는 특수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아직 왕에 이르지 못한 거수라는 존재가 통치하였다. 이들의 명칭을 馬韓의 경우 큰 자를 臣智, 그 다음을 邑借라 하였으며¹⁶⁾ 辰弁韓의 경우에도 큰 자를 신지라 하고 그 다음을 險側, 그 다음을 樊濊, 그 다음을 殺奚, 그 다음을 邑借라 하였다.¹⁷⁾ 즉 삼한의 대부분 ‘국’에는 거수로서 신지·힘측·번예·살해·읍차 등으로 지칭되는 존재가 지배체제를 형성하여 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¹⁸⁾

16)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17) 위와 같음.

18) 그런데 이같은 양상을 보다 구체화시켜 주는 것으로서 중국이 삼한의 거수들에게 수여한 관작 명칭이 있다. 景初年間(237~239)에 魏가 낙랑, 대방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고 삼한사회에 대하여 관작과 인수를 수여하여 간접적 통제를 강화하였는데 이 때 邑君과 邑長의 명칭이 보이고, 보다 구체적인 관작으로서 魏率善邑君·歸義侯·中郎將·都尉·伯長 등이 언급되고 있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여기서 귀의후·왕·읍군·읍장 등은 독립된 정치세력의 지배자에게 주어진 작

따라서 삼한 각국의 내적 통치체계는 적어도 신지를 정점으로 하고 읍차에 이르기까지 몇 개의 서열화된 단계가 있었으므로 이는 정치조직의 발전 단계에 있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체계가 중국세력에 의해 인정되어 그들의 위상에 대응하는 작호가 수여되었다는 사실은 이들의 서열화된 명칭이 실질적인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삼국지》동이전 濊條에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자료가 있다.

- C-① 大君長은 없다. 漢나라 이래로 그 관작은 侯와 邑君과 三老가 있어 下戶를 통할하였다.
- ② 그곳의 渠帥를 봉하여 侯로 삼았다. 지금 不耐濊는 모두 그 種族이다.
- ③ 正始 6년 樂浪太守 劉茂가... 군대를 일으키자 不耐侯 등이 고을을 들어 항복하였다.
- ④ 正始 8년 다시 조공을 바쳤으므로 不耐濊王으로 봉하였다. (불내예왕은)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살았다.

C-①에서는 濊에는 君長이 없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고, ②에서는 渠帥를 侯로 임명하였다는 것이며 ③에서는 不耐侯의 한 단면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④에서는 不耐濊王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하여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지배자의 호칭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집단의 정치발전 단계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참고가 된다. 앞에서 본 準侯·準王에 관한 기사를 참조하면 이와 같은 성격의 선상에서 유사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侯나 王의 칭호는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서 융통성있게 운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다

호로 각 세력간의 정치적 위치를 감안하여 수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중랑장·도위 등의 작호는 군태수와 비슷한 위계의 관직명이고 백장의 경우 더 하위의 직명으로, 이들 관작을 받은 존재는 독립된 정치세력의 지배자라기보다는 신지 이하에 예속된 읍차 등과 같은 통치체계의 하위 서열자들에 대한 수여로 이해된다. 특히 경북지역에서 발견된 ‘魏率善韓伯長’ 銅印과 ‘晉率善穢伯長’ 동인의 존재 그리고 평양지역의 ‘夫租穢君’ 동인 및 《삼국사기》의 ‘濊王之印’ 등의 예를 볼 때 실제로 작호의 수여와 인수의 제공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른 한편으로는 위계질서가 서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군장이라는 칭호는 왕이나 후와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대비해야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상에서 문헌 자료를 통해 정치적 단위를 추정할 수 있는 지배자의 칭호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가 고고학의 입장에서 검토되고, 또 고고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문헌 사료의 결핍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의 발달 단계를 구체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夫租藏君의 印章은 이러한 문제를 푸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1958년 평양 貞柏洞의 목곽묘에서 ‘부조예군’이라는 銀印이 나온 바 있는데 함께 반출된 유물로는 銅劍・銅鉞・鐵劍・馬具・車具・土器 등이 있다.¹⁹⁾ 이 유물들을 보면 곧 토광묘 계통에서 출토되는 유물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검과 철검이 동시에 나온다는 것은 철기 위주의 토광묘가 아니라 지난날 청동기문화 일부를 답습하고 있던 시대의 문화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장이 출토된 무덤이 단순한 토광묘가 아니라 꺾이 있는 토광묘라고²⁰⁾ 알려지고 있어 문화의 계통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여하튼 토광묘에서 부조예군이라고 쓰여진 은인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이 무덤의 피장자가 부조예군임이 분명하고, 또한 함께 출토된 유물로 보아 그가 韓人이었다는 것도 거의 틀림 없는 사실로 보여진다.²¹⁾ 그러므로 이 인장은 부조의 군장이 어떤 문화 단계의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夫租라는 이름은 《漢書》 지리지에 보이는 낙랑 동부7현 가운데 하나인 夫租縣 그것이며 시기는 대개 기원전 1세기 경으로 보고 있다.

위의 사실과 연관되는 유물이 1961년 정백동 목곽분에서 나온 바 있다. ‘부조예군’이라는 인장이 나온 곳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夫租長印’, ‘高常賢印’이라는 은인이 나온 바 있는데, 이 인장은 이 시기의 사정을 파악하는 데 더없이 귀중한 자료이다. 이 무덤에서는 鏡・馬面・車馬具・黑漆蓋

19) 백련행, 〈부조예군도장에 대하여〉(《문화유산》 2, 1962), 61쪽.

이순진, 〈부조예군무덤에 대하여〉(《고고민속》 4, 1964), 39쪽.

20) 金貞培, 〈君長社會의 發展過程 試論〉(앞의 책), 206~207쪽.

21) 岡崎敬, 〈夫租藏君銀印をめぐる諸問題〉(《朝鮮學報》 46, 1968), 49~60쪽.

金基興, 〈夫租藏君에 대한 고찰〉(《韓國史論》 12, 서울大, 1985), 3~34쪽.

등이 細形銅劍과 함께 출토되었다. 夫租長印은 夫租縣長의 의미이고 高常賢印은 고상현의 인장을 뜻하므로 이 무덤은 고상현의 무덤이라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 이 무덤에서 세형동검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채로우며 여타의 중국계 유물과 혼재하고 있는 것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 고상현을 낙랑 토호인 중국인으로 보는 의견이 있지만 세형동검이 반출되었다는 사실과 부조예군의 경우를 참조하여 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고고학의 처지에서 기원전 1세기 경의 유물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고 문헌에 보이는 군장 단계의 사회를 연결해 보면 군장사회와 국가의 단계를 어떻게 어느 선에서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삼한사회에 존재하였던 여러 정치체들은 국가 성립 직전의 정치체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 즉 앞서 언급하였던 국가(State)의 개념을 감안할 때 삼한사회에 존재한 78개의 ‘國’들은 대부분이 국가사회를 형성하기 전단계의 정치적 존재였다고 볼 수 있다.²²⁾ 그런데 이들 삼한사회의 국들에 대해서는 인구구성과 관련된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다. 즉 馬韓의 경우 “50여 국으로 大國은 萬餘家 小國은 數千家로 총 십여 만 호”²³⁾라고 하였고, 辰弁韓의 경우 “弁辰은 12국으로 또 여러 작은 別邑이 있다. 대국은 四五千家 소국은 六七百家로서 총 四五萬戶이다”²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구수는 해당 정치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추론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서 오늘날 세계 학계에서도 국가의 기원문제를 언급할 때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²⁵⁾ 또한 인구수는 해당 지역의 규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치체의 전반적 규모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²⁶⁾

자료에서 보듯이 마한의 소국 수천 가의 규모는 辰弁韓의 대국 사오천 가

22) 金貞培, 앞의 글(1979), 229쪽.

23)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24)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弁辰.

25) Oberg, K., “Types of Social Structure among the Lowland Tribes of South and Central American”, *American Anthropologist* 57, 1955, pp.472~487.

26) 金貞培, 앞의 글(1979), 224~225쪽.

의 규모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정치체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삼한사회에 존재한 여러 정치체는 일단 人口構成면에서 적어도 내용을 달리하는 네 개의 정치체의 양상을 가정하게 한다. 이같은 양상은 《삼국지》동이전과 《三國史記》 등의 문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정치체의 규모와 성격을 구분한 내용과 연결된다.²⁷⁾

우선 가장 선진적인 정치발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단계에 해당하는 정치체는 마한의 대국 규모의 존재로서 만여 가의 인구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회이다. 삼한사회의 1家の 규모는 삼한지역의 주거지 발굴을 통해 구성인원이 약 5명 내외임이 밝혀져 있다.²⁸⁾ 이에 의거한다면 만여 가의 사회는 인구 5만여 명을 포용한 사회로서 상당히 규모가 큰 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⁹⁾ 이같은 규모는 삼한 전체에서 몇 개 이상 상정하기는 곤란하므로 문헌상에 나타나는 마한지역의 目支國과 伯濟國, 진한지역의 斯盧國, 변한지역의 狗邪國 등이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결국 다양한 정치체간의 통합과정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존재로서 국가형성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백제·사로·구야는 각각 百濟·新羅·加耶로 발전하였지만 삼한사회에서 가장 먼저 발전된 사회로 이해되었던 마한의 목지국은 백제에 의해 병합되어 연속성을 상실하였다.

두번째로 상정되는 삼한사회의 정치체는 마한의 소국과 진변한의 대국 규모의 정치체로서 인구 규모가 약 2만여 명 내외의 사회이다. 이같은 규모에 해당되는 정치체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으나 신라에 복속된 주변 세력 중 상당한 규모로 이해되고 있는 押督國·召文國·甘文國·沙伐國 등과 마한사회의 乾馬國을 이같은 정치체에 비견해 볼 수 있다. 이들 정치체는 신라에 복속되면서 ‘郡’으로 편제되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건마국의 위치는 전통적으로 전북 益山郡 金馬面 일대로

27) 金貞培, 「『三國史記』에 보이는 ‘國’의 解析問題」(앞의 책), 223~240쪽.

28) 金正基, 〈無文土器文化期の 住居地〉(《考古學》3, 1974).

29) 일반적으로 군장사회의 인구 규모는 1만여 명 내외로 보고 있는데 아메리카 인디언의 경우 5만 명이나 되지만 군장사회 단계로 이해되고 있음에서 그 범위를 짐작케 한다. 이는 삼한의 대국 규모의 성격을 이해하는 하나의 자료로 이해될 수 있다(金貞培, 앞의 글, 1979).

비정하여 왔다.³⁰⁾ 건마국과 관련된 문헌 자료는 보이지 않으나 익산 일대에서 확인되는 상당량의 청동유물은 바로 이곳이 건마국이 있던 곳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게 한다. 즉 금마면·王宮面·八峰面·三箕面·完州郡 上林里 등지에서 발견된 琵琶形銅劍·粗文鏡·桃氏劍·細形銅劍·後漢鏡 등의 유물은 이것을 반출하는 분묘의 주인공이 삼한사회의 정치적 지배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는 곧 건마국의 군장과 관련된 일정한 영역과 위상을 알려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도씨검과 후한경의 존재는 건마국의 군장이 내부적인 통치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교섭에서도 중심 인물로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³¹⁾ 이같은 청동유물의 집중적인 반출과 그 문화의 성격 및 규모를 감안할 때 건마국과 같은 정치체는 앞에서 본 대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바로 그 다음 단계의 존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 상정되는 辰弁韓의 소국에 해당하는 정치체는 《삼국사기》에서 산견되는 소규모의 ‘國’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 즉 신라의 경우 주변의 정치체들을 복속시키는 과정에서 郡에 속하는 縣으로 편제된 세력들이 이같은 소국에 해당하리라 생각된다.³²⁾ 마지막으로 상정되는 ‘諸小別邑’ 단계의 정치체는 최소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보기 힘든 존재로서 주변의 강력한 정치세력에 거의 귀속된 상태, 또는 완전 예속된 형태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같이 인구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삼한사회의 정치체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비록 각 세력간의 격차는 존재하지만 各國數와 人口數를 대비해 볼 때 만여 명 내외로 구성된 정치체가 평균적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삼한사회에서 볼 수 있는 蘇塗와 天君의 존재는 이들 사회가 상당히 발전된 수준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정치적 지도자와는 별도로 제사를 담당하는

30) 金貞培, 앞의 책, 229~230쪽.

31) 金貞培, 위의 책, 230~238쪽.

32) 義昌郡에 편제된 音汁火縣은 婆娑王 때 음즙화국을 취해 편제한 것으로 후에 安康縣에 속하는 규모이며 臨臯郡에 배속된 臨川縣은 助賁王 때 骨火小國을 정벌해 대치한 것으로 그 규모가 군으로 대치할 수준이 못되는 소규모의 정치체였다고 생각된다. 신라가 주변세력을 복속시킬 때 沙伐國은 尙州로, 召文國은 義城郡으로 甘文國은 開寧郡으로 편제한 것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소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천군이 있었다는 것은 삼한사회의 분화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종교 의례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지역으로서 소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정치적 발전수준이 높았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³³⁾ 특히 소도나 천군과 관련되는 劍·鏡·玉 등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시켜준다고 하겠다.³⁴⁾ 이상에서 본 것처럼 삼한사회의 ‘국’으로 표현된 존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국가(State)’의 개념에 해당되는 존재가 아니라 일정 영역의 정치체로서 아직 국가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군장사회 단계(Chiefdom Level)라고 해야 할 것이다.

〈金貞培〉

33) 金貞培, 〈蘇塗의 政治史的 意味〉(《歷史學報》79, 1978; 앞의 책, 141~166쪽).

34) 金貞培, 〈劍·鏡·玉과 古代의 文化와 社會〉(위의 책, 209~222쪽).